

수직고경이 감소된 환자의 Konus Telescopic RPD를 이용한 보철수복증례

최근배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구강내 소수 잔존치만이 남아 있는 경우 clasp RPD, attachment, telescope, implant 등을 이용한 다양한 술식이 사용 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술식 중에 지대치로부터 견고한 지지를 구하고, 움직임이 없고 파절되기 어려운 구조로 telescopic RPD를 치료 형태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의 장점으로서는 내·외관 유지력의 조절 가능, 내·외관 유지력의 장기간 안정성, 우수한 위생 상태, 심미성, 잔존치조제의 적은 흡수, 수리의 용이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지대치의 치경부에 undercut이 생길 수 있어 치태 침착 가능, 외관의 overcontouring 가능성, 전치부에서 치경부에 금속의 노출 가능성, 그리고 외관 철거시 내관의 금속 노출로 인한 비심미성이 지적 되고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상·하의 불량 보철물로 인한 수직 고경의 감소로 인하여 저작기능 저하를 주소로 내원 하였다. 상악 보철물에서는 complete denture의 인공치의 많은 마모와 하악에서는 불량 보철물로 인하여 plaque control이 부적절한 상태였으며, 수직 고경의 감소로 인한 위축된 안모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교합 평면은 마모로 인하여 후하방으로 경사되어 있어서 부적절한 전방 유도를 가지고 있었다.

수평, 수직 악간 관계에 대한 검사후 적절한 악간 관계를 채득한 다음 교합기 상에서 incisal guide pin을 4mm 높여, 수직 고경은 안정공극내의 소구치부에서 약 1.5mm 정도 거상 하여 진단 wax-up을 시행 하였고, provisional restoration을 제작하였다. Provisional restoration 장착 후 검사기간 동안 수직고경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없었고, 환자는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하였다. 12주 이상의 관찰 기간 후 최종 보철물 제작에 들어갔으며 최종 보철물의 형태는 상악에서는 complete denture, 하악에서는 Konus telescopic denture로 하기로 했다. 전방 유도는 provisional restoration 장착 후 검사기간을 지낸 후 얻어 진 안정화된 상태의 수직 고경에서 customized anterior guide table을 이용하여 최종 보철물을 재현하도록 하였다. 각 치아는 지대치 형성 후 내관을 제작하였으며, pick-up impression 후 외관을 제작하였고, 상악의 경우에는 상악 인공치 교합면에 금속 교합면으로 수복 하여 교합 안정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최종 보철물 제작 후의 환자 내원시 저작, 연하, 발음, 심미성에서 만족 할 만한 결과를 보여 임상 증례를 발표하며, 향후 주기적으로 recall 및 maintenance와 예후 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Swing-Lock Framework을 이용한 Obturator 환자의 치료

김연희*, 허성주, 장익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상악 구개 결손은 양성 및 악성 종양의 수술적 치료 및 외상, 감염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한 상악 결손 부위가 외과적 수술에 의해 closure되지 않는 경우 보철적 수복이 요구된다. 이러한 구개결손 부위의 보철적 수복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었다. 모든 보철 치료의 기본 목적은 손상된 발음, 연하 및 저작 기능을 회복하면서 편안하고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보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목적은 악안면 보철수복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상적으로 후천성 결손이 있는

환자에게 작용되는 obturator는 장착시 편안하고 발음, 저작 및 연하 기능을 회복하고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 증례는 상악의 광범위한 구개 결손이 있는 환자에서 잔존치가 소수 남은 경우에 obturator의 안정, 지지 및 유지를 얻기 위해 swing-lock framework을 이용하여 보철물을 제작한 증례이다.



Magnet를 사용하여 Obturator와 Orbital Prosthesis를 연결한 악안면 결손수복증례

노현기*, 허성주, 장익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악안면 영역의 종양 수술후, 결손된 구개부와 안구 및 안외부를 obturator와 orbital prosthesis로 보철수복한 증례이다. 악안면 보철물의 유지를 위하여 implant사용이 도입되었으나, 방사선이 조사된 경우나, 경제적 측면에서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고, adhesive 사용시, 숙련되지 못한 손놀림을 가진 환자에게서는 정확한 안착이 어렵고, 악안면 보철용 실리콘의 수명 감소의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해부학적 구조와 magnet를 사용한 두 보철물의 연결을 통해 retention과 stability를 얻은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Magnetic Denture

양은선, 정순호, 김영훈
가천 의과대학 부속 길병원 보철과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무치악 환자의 경우 지지, 유지, 안정성은 무치악제의 연조직과 경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환자들은 유지, 의치의 안정성의 감소로 인한 불편감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지골의 흡수가 불가피하다.

그나마 아직 몇 개의 치아를 지닌 환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치료로 overdenture가 있다. Overdenture는 치주인대의 감각이 남아 있으므로 인해 환자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안정감을 주며, 잔존치조골의 흡수는 감소하며 지지능력은 향상되게 된다. 또한 저작 능력과 함께 의치의 유지 및 안정성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임플란트의 발달로 인해 잔존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서도 2-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overdenture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Overdenture에서 치아나 임플란트에 보조적인 유지장치를 사용하여 그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유지장치로 stud attachment, 치아와 치아를 bar로 연결하여 이용하는 attachment, magnetic attachment가 있다.

Magnetic attachment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크기, 흡인력, 내구성 및 내식성 등의 문제로 인해 널리 이용되지 못하다가 최근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소형으로 그러나 흡인력은 더 강력한 attachment가 개발되어 overdenture와 가철성 국소의치 등에 이용되고 있다.

Magnet을 이용하는 attachment는 mechanical retention을 이용하는 기존의 attachment에 비해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으며, 지대치에 힘이 집중되지 않고 특히 측방압을 적게 가하여 치주적으로 지지 상태가 충분치 못한 치근이라도 사용할 수 있어 임상에 널리 적용될 수 있